

았다.

高麗末의 鑄字本으로 알려진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卷下, 1377)은, ① 각 행의 글자수가 18-20자로 1-2자의 差異가 있었으며, ② 같은列의 글자들은 左右로 出入을 보여 一直線을 이루지 못했고, ③ 심한 경우 윗 글자와 아래 글자가 間隔이 없이 서로 붙거나 엇물리기도 하였다. 癸未(1403)字로 序文을 적은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에는 글자가 서로 붙거나 엇물려 있고 같은 글자의 모양도 달라서, 蜜蠟鑄造法으로 實驗鑄造한 活字들의 特徵과 비슷했다. 또한, 癸未字 系統의 活字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日本의 스루가파인 「勸學文」의 勅版에도 活字끼리 서로 엇물려 있는 곳이 보인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庚子(1420)字와 甲寅(1434)字로 적은 印本들은 1행의 글자수가 같고, 글자끼리 어느 程度의 間隔을 가지고 있어 엇물리지도 않았으며, 같은 版에 있는 同一한 글자의 模樣도 같은 境遇가 종종 나타났다. 이러한 特徵은 鑄物砂鑄造法으로 實驗鑄造하여 얻은 活字로 印刷한 글자들이 나타났었다. 靑銅活字를 復元한 活字로 적은 글자의 特徵과 麗末 鮮初 鑄字本의 書誌的 特徵을 比較한 結果, 朝鮮初에 活字를 鑄造하는 技術이 密蠟鑄造法에서 鑄物砂鑄造法으로 바뀌었음을 確認한다. 癸未字까지는 密蠟鑄造法으로 만들었을 것이나, 庚子字부터는 새로 發明한 鑄物砂鑄造法으로 靑銅活字를 鑄造했을 것이다.

## 日本古地圖에 있어서의 韓國에 對한 關心

東海大 石山 洋

도는 단 하나 뿐이다.

### 朝鮮世表并全圖(題簽) 1鋪

田(宮) 仲宣校 長田愚侯補 浪華, 森本太助, 中川松之助合刻 文化三(1806)刊, 木版筆彩 27cm (53×133cm, 지도 53×66cm)

이 지도는 「동국통감」에 의해 작성된 朝鮮世表, 朝鮮國使來 등을 열기한 표면에 임자평이 그린 '조선팔도지도'는 임자평(林子平) 저 「삼국통람도설」 천명 5(1786)의 付圖의 하나이다. 위선을 넣지 않고 경선만을 기입한 지도. 같은 「圖說」에 “조선의 지도는 朝鮮大象胥로 전해져 내려오는 崎陽人栖林氏가 秘藏하고 있는 珍圖가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이외에도 刊圖로는 다음과 같은 중국과 합천 地圖와 일본 周邊 지도 등이 약간 있다.

朝異一覽 靑苔園誌 仙胤校 刊行年은 不記 (19835-1867) 목판채색 66×58cm (지도 53×57)

大日本沿海要彊全圖 工藤東平撰 同齋散人表識 嘉永七(1854)刊行 목판채색 106×54cm

寫圖로는 中村 拓씨의 연구에 의하면 옛날 織田信長の 號令時代(1586-82)에는 「混一疆理歷國都圖」(1402 成)과 「동국여지승람」(1478 成 신증 1530) 등이 일본에 전해지고 있고 그것들이 手寫되어졌다.

이것들은 곧 御朱印船航海圖에 합해졌다.

그러나, 에도시대에는 중국系 세계지도와 서구系 세계지도에 나타나 있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도를 중심으로 일본인의 관심부터 검토한다.

근대 以前 일본에서 간행된 단독의 한국지